

무 생산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자가노력비이며, 전체 생산비에서 25.0%를 차지한다. 그 다음으로 고용노력비, 대농기구상각비, 토지자본용역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.

<표 3-3-5>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

(단위 : 원/10a)

순위	구분	평균생산비	비중
1위	자가노력비	327,615	25.0%
2위	고용노력비	139,608	10.7%
3위	대농기구상각비	129,677	9.9%
4위	토지자본용역비	116,078	8.9%
5위	종자/종묘비	88,170	6.7%
6위	무기질비료비	88,077	6.7%
7위	유기질비료비	83,055	6.3%
8위	제재료비	81,153	6.2%
9위	임차료	80,356	6.1%
10위	농약비	77,335	5.9%
11위	영농시설상각비	23,044	1.8%
12위	광열동력비	22,997	1.8%
13위	고정자본용역비	18,436	1.4%
14위	수선비	13,679	1.0%
15위	위탁영농비	8,293	0.6%
16위	유동자본용역비	7,620	0.6%
17위	소농구비	2,387	0.2%
18위	수리비	1,039	0.1%
19위	기타요금	719	0.1%
합계		1,309,339	100.0%

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은 2001년부터 2015년 동안 모두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생산비에서 74.2%를 차지한다. 대농기구상각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고용노력비, 무기질비료비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.

<표 3-3-6> 무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(단위 : 원/10a)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연평균	2014 vs. 2015
1순위	자가노력비	327,615	25.0%	1.8%	-1.0%
2순위	고용노력비	139,608	10.7%	5.7%	18.0%
3순위	대농기구상각비	129,677	9.9%	8.1%	20.6%
4순위	토지자본용역비	116,078	8.9%	3.3%	-4.5%
5순위	종자/종묘비	88,170	6.7%	3.5%	11.7%
6순위	무기질비료비	88,077	6.7%	5.6%	-7.9%
7순위	유기질비료비	83,055	6.3%	3.9%	14.2%